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부초등학교 교장

고구마 다수확재배와 이용

고구마 수확 철이다. 단위면적에 가장 많은 수확이 되는 농작물은 고구마와 양파다. 고구마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전래한 농작물인데,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재배하며 4~5월 중에 고구마순을 꺾꽂이로 심어 서리가 오기 전에 캐서 수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구마는 상강(霜降)을 전후해서 캐서 냉해를 피해 보관해야 한다. 필자는 4~5월 중에 심은 고구마를 캐는 작업을 했다. 이랑에 비닐을 씌운 곳과 씌우지 않은 곳을 비교했는데 비닐을 씌우지 않은 이랑의 수확이 많았다.

고구마 순을 쫓을 때 비스듬히 알게 쪼아야 하며 굽뎀이 제거를 위한 토양살충제를 잘해야 피해가 없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60년대는 가뭄으로 흉년이 연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한해 대책을 세워 전천후농사를 지으려고 관정을 파고 4대 강 수리 사업과 저수지를 만들었다. 한편, 다수확 재배를 위한 종자 개량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대표적 성과가 벼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품종의 개발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농촌의 농농사는 한해를 극복하고 논에서 쌀 다수확으로 식량부족을 해소하고 이제는

쌀이 남아 창고에 저장미가 남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미질이 낮은 통일벼 벼농사를 하지 않고 소득이 낮지만, 미질이 좋은 벼 품종을 선택해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것은 벼 다수확 재배의 성공이었고 후진국 농업이 우리 농업기술과 벼 품종을 수입해 재배하고 있다. 한편, 어려웠던 시절 비교적 가뭄의 한해를 이겨 내며 생산 수확을 올려 기근의 효자 노릇을 한 고구마는 국민소득증대와 식생활 개선으로 식용으로 선택하는 데서 멀어져 생산해도 소비가 안 되어 문제시되었으며 고구마 농가에서는 그동안

산립녹화 성공으로 숲이 우거져자 멧돼지 번식이 많아지고 고구마밭에 피해를 주어 고구마 농사를 포기한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과 FTA가 체결되고 외국농산물이 국내에 유입되므로 우리 농산물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적으로 다량 수확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농작물 재배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게 되어 농약을 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작물 품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적합한 품종이 있으니 바로 고구마재배다.

고구마는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나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농약을 않고 재배하는 무공해 농산물이다. 이러한 고구마가 종전의 품종을 개량해 양적으로 다수확이 되고 질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고구마재배 농업소득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축산업에서 사용한 사료는 대부분 수입 옥수수를 주원료로 해서 만든 종합 사료다. 옥수수값이 오르면 사료값이 올라 축산은 타산이 맞지 않아 도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급 사료 작물 재배가 필요하게 되었다. 재배하기 쉽고 농약사용을 하지 않으며 단위 면적에서 가장 많은 수확이 된 고구마는 밭뿐 아니라 논에도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다량 생산하면 식용으로도 쓰지만, 사료원료로 저장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정부에서 전량 제값으로 사들임으로써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자급 사료 작물 재배로 옥수수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단위 면적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고구마의 생산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고구마 수확이 많다. 필자는 지난해 무안군 몽탄면에서 옥수수를 사료작물로 논에 심어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시범작업 현장을 가 보았는데 수확 후 미리 육묘한 모종을 심어 옥수수 2모작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단위면적에서 옥수수 수확량과 고구마와의 수확은 비교가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확 고구마 재배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고구마를 사료작물로 이용해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 사료원료를 국산 고구마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공해 농작물인 고구마 다수확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고구마 재배를 권장해 재배면적을 늘려 생산된 고구마를 국가에서 수매하여 농촌 축산사료 국산화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도로변 대표적인 가로수인 느티나무, 빛나무, 단풍나무, 플라타너스에서 떨어져 흩어진 낙엽을 밟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낙엽위를 지나갈까 생각해본다. 가을 끝자락에 낙엽 밟는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는 보고 느끼면서 생활한다. 시월의 가을이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지나가고 벌써 달력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수목들은 가을 색을 털어내기에 분주하면서 세월을 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잊혀진 계절 어느 가수의 애절한 노래가 귓가를 울려 퍼진다. 시월이 지나듯 세월은 바람처럼 물처럼 보일 듯 보이지 않으면서 흘러만 간다. 가을은 농부들의 땀 땀으로 가꾼 곡식들이 결실을 맞이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그리움이 복받치는데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까봐 조마조마 숨죽이며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만물은 멈추고 숨을 죽이는 가을 고독을 우리는 한번쯤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가을 소리만 듣고 상상만 해도 마음과 몸이 숙연해지면서 지나온 옛일이 생각나는 것은 가을이 주는 고독과 사색만으로도 스쳐가는 인연을 생각하는 무언가를 그리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차곡차곡 쌓이는 그리움은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고운 낙엽을 마음속 깊이 쌓아 보련다. 가을은 악한사람도 선한사람도 시인이 되듯이 그만큼 낙엽을 보면 마음과 몸이 자연에 동화되어 지나간 흔적과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한다. 별것 아니라고 보면 참으로 시시하고 쓸모없고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귀하다고 여기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여 세상 어느 것보다 찬란한 인생인 것을,, 필자 역시 매년 계절 따라 함께 찾아오는 중년의 가을이지만 아직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